

다문화 속의 에스니시티와 유목성 고찰:

재한 몽골인을 중심으로

박환영*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이제 다문화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1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 그런데 한국사회가 다민족문화를 가지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더라도 한국인이 다문화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주듯이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즉 해외동

* 중앙대학교

1) 부산일보에 실린 2007년 9월 10일자 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72만 2천 686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전경수(1995)와 Lee(2000) 그리고 이광규(1997, 2000)와 윤인진(2004)이 대표적이다.

포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이 해외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속해 있는 경우 어떻게 그들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는가에 대한 연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한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문화 속에 어떻게 이러한 다민족 문화가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다³⁾.

한국 내에 존재하는 다문화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화교문화이며 이러한 논의는 벌써 이전부터 꽤 많이 진행되어 왔다⁴⁾.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의 서래마을과 같은 프랑스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 생기는가 하면 가리봉동과 구로동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경남 남해에서는 독일인 마을이라고 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주로 독일로 파견되었던 한국인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노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서 한국 내에 독일의 문화를 알리려는 노력을 경주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기술한 한국 내에 있는 다양한 외국의 문화 외에도 최근에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한국 내에 존재하는 몽골인의 정체성과 몽골의 문화이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은 대략 30,000명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몽골의 인구를 2백 8십만 명 정도로 본다면 몽골의 전체인구에서 100명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은 외모로만 보면 한국인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하게 되면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씩 몽골인들이 한 둘씩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끈기와 투지를 가진 몽골인들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 및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입장을 보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ethnicity)’⁵⁾라는 관점에서 한

3) 오경석 외(2007) 참조.

4) 박은경(1986) 참조.

국 내에서 보여지는 몽골인의 정체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목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몽골인들이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시켜 나가는지를 아울러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를 논의하면서 흔히 떠올리는 용어는 갈등, 차이, 격차, 소외 등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다. 물론 대부분의 다민족 문화 속에서 이러한 문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특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여러 집단이 거주하다 보면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까지 에스니시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문화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입장은 이러한 측면에 못지않게 다문화문화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목문화에 익숙한 몽골인들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 나름대로의 몽골 문화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속의 에스니시티와 유목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한국 속의 다문화주의와 몽골문화

몽골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지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과 같은 느낌이 드는 나라였다. 이것은 두 나라가 역사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지만 냉전체제로 인하여 1990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교류가 시작된 지 불과 18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너무나도 가까운 우방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48년부터 지속되어 온 몽골과 북한과의 친밀한 형

5) 국내 학계에서는 에스니시티(ethnicity)를 종족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김광익 2005: 19). 다만 본 논문에서는 그냥 에스니시티로 표기하고자 한다.

제적 협력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몽골과 북한의 외교 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전직 북한주재 몽골대사였던 롬보(Lombo 2007)에 의하여 간행되었던 자료에 의하면 사회주의 기간에 북한과 몽골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詩)가 있는데, 이것은 몽골의 대표적인 인민작가인 쉰렌자브(Sürenjav)가 지은 “맑은 아침의 나라”라는 시(詩)이다. 몽골어로 된 이 시(詩)의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serüün tungalag öglöonii oron (맑은 아침의 나라)
 solongo tatsan solongos oo (무지개가 비친 조선이여)
 ulaanbaatar - pheniyān (울란바타르와 평양은)
 urag setgeliin holbootoi (마음으로 이어졌고)
 uulsyn öndör bogd uul - pektusan (보그드산과 백두산은)
 agaaryn üülen holbootoi (구름으로 이어졌고)⁶⁾

몽골과 북한이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혈맹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52년에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 살에서 여섯 살 사이의 북한 고아 200명(남자 111명과 여자 89명)을 몽골에 데려와 양육하면서 정식 학교체제로 조선어, 몽골어, 산수 등의 과목을 교육시켰던 역사적 사건에 또한 단단한 기초를 두고 있다.⁷⁾ 몽골인들은 북한의 고아들이 1959년 북한으로 모두 귀국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고아들을 돌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50년대에 몽골을 방문한 뉴질랜드의 작가 러위 알리(Rewi Alley)에 의하여 한 편의 시(詩)로 옮겨져서⁸⁾ 서구사회에까지 알려지게 된다.

한편 북한이 주도하였던 몽골과의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는 1980년대 후반 자유화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로 약화되었지만, 시장경제를 기초로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6) Lombo(2007: 184) 참조.

7) 위의 책, 201 페이지.

8) 박환영(2005: 366) 참조.

으로 다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몽골에 의한 한국인들의 기억은 과거 원나라와의 정치적인 동맹과 삼별초 항쟁으로 기억되는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몽골 귀족들 사이의 일방적인 친밀한 인척관계는 고려시대에 왕족 사이의 결혼(동맹)에 의하여 이미 7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즉 1274년부터 1349년까지 충렬왕에서부터 공민왕에 이르기 까지 거의 100년동안 5명의 고려왕이 몽골의 왕족으로부터 8명의 아내를 얻어서 공식적인 왕후로 삼았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다.¹⁰⁾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을 현대로 오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시작된 진도평화제는 진도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909년 후백제와 후고구려간의 전투, 13세기(1270-1271) 여몽연합군과 삼별초 간의 공방전, 16세기(1597년)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과의 명량해전, 19세기(1894년) 동학혁명의 최후 격전, 그리고 20세기(1950년) 한국전쟁 등이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도는 많은 전사자들을 내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민족성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초월해서 진도에서 전사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도하여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한(恨)을 풀어주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진도평화제는 시작되었다.¹¹⁾ 특히 이러한 축

9) 몽골의 왕족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민들도 결혼동맹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했던 것이다. 즉 몽골의 유목문화를 보면 족내혼보다는 족외혼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넓은 초원지역에서 유목생활을 성공적으로 여위하기 위해서는 친족 간의 결속과 유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몽골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풍속이 오늘날에도 강하게 남아 있다. 문헌에 나오는 자료를 보아도 흔히 말하는 ‘결혼 동맹’(marriage alliance)에 의하여 가능한 많은 친족집단을 확보하고 광활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친족네트워크를 설정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의 경우도 혼자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을 데리고 와 있는 경우 혹은 이미 한국에 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10) 정용숙(1992), 이한수(2006) 참조.

11) 진도평화제는 2008년에 명량대첩축제와 세계구축제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세계구축제의 하나로 몽골의 샤면(무당)을 초청하여 굿을 시연하는 행사도 가

제의 한 부분으로 당시 고려와 몽골 간의 정치적 갈등이 비로소 21세기에 오면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고려와 몽골 간의 정치적인 혼인관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고도 부정적인 과거의 인식이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몽 양국 간에 정치 및 경제적으로 돈독한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사이의 문화적인 교류¹²⁾도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속에 존재하는 몽골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양국 사이에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면서¹³⁾ 많은 한국인들이 몽골을 찾고 있으며 많은 몽골인들 또한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진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몽골인들과 몽골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주로 한국에 시집은 외국의 며느리들이다. 주로 시골의 총각에게 시집오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에 비하여 고유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농촌사회가 이러한 외국의 며느리들로 인하여 도시 공간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민족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국제행사, 어학원, 대학교의 교환학생들, 유학생, 단기 산업연수생들로 인하여 다문화적인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소도시나 시골마을은 오히려 좀 더 작은

졌다. 아마도 이제까지 진도평화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고려 때 진도에서 전사한 몽골 군인들의 원혼을 달래고 천도하였다면 2008년 몽골의 사면을 초청하여 몽골곳을 시연한 것은 좀 더 폭 넓은 그리고 포용적인 형태의 평화제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12) 경기도 남양주시와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의 공동 협약에 따라서 2000년 4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몽골문화촌이 개관하였다.
 13) 2005년 12월 말 자료를 보면 당시 몽골에 투자한 금액이 1억 1천만 달러로 중국, 캐나다,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외교통상부(편), 2006).

범위에서 그러나 좀 더 친밀한 요소를 가지고 다문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기도 하다. 다문화주의를 다루면서 외국인 며느리를 포함한 국제 결혼에 대한 접근은 제법 많이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¹⁴⁾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체성과 에스니시티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가령 정체성과 에스니시티와 관련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친목집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나 공간 그리고 전통적인 축제라든지 인터넷 공간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자는 을지로 6가의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인근에 있는 몽골 타워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의 공간답게 건물 속에 들어가면 정말로 몽골에 와 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몽골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몽골 타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몽골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제법 있으며 거리에서는 몽골어로 말하는 몽골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몽골인이거나 몽골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이곳에서는 몽골어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한국어를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때로는 한국어를 모르는 몽골인들도 있어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통역을 해주기도 한다.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은 몽골에 있는 몽골인들 못지않게 몽골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몽골어를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몽골인들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필자가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고찰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필자가 1990년대에 몽골의 현지에서 현지조사를 할 때는 얼굴 생김새와 억양 때문에 필자는 부리아트몽골인¹⁵⁾으로 혹은 내몽골인¹⁶⁾

14) 왕한석(2007)과 한건수(2006), 김민정 외(2006) 참조.

15) 부리아트몽골인들(Buryat Mongolians)은 러시아 연방내의 부리아트 공화국에 주로

으로 흔히 간주되었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할하 몽골인들¹⁷⁾은 필자의 몽골어 억양이 다소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몽골인¹⁸⁾과 제법 닮아 보인다고 이야기 하곤 했다. 이렇게 필자는 몽골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완전한 외부인도 아니고 완전한 내부인도 아닌 독특한 신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 문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2008년 몽골의 현지가 아닌 서울의 한 북판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몽골에 애착을 느끼는 한 한국인으로서 필자가 몽골 타워를 방문할 때 때때로 느끼는 바는 혹시 불법 노동자를 단속하는 사복경찰이 아닐까 하는 일부 몽골인들의 경계심이다. 그러나 필자가 몽골인 친구와 함께 몽골타워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몽골타워에 있는 몽골인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의 내면에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몽골의 유목문화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여행 중에 몽골인들은 몽골의 전통적인 텐트인 겔(ger)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아무 곳이나 앉을 수 없는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령 아무도 모르는 외부인의 경우에는 문(門)을 열고 들어간 방향에서 텐트의 왼쪽인 서쪽에 앉아야 하는데 이곳은 외부인들로부터 가족이나 친족의 구성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남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외부인이 가족이나 친족의 구성원들과 잘 아는 사이라든지 친구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친한 경우에는 텐트의 오른쪽에 있는 여성들의 공간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전통에 익숙한 몽골인들은 몽골타워라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공간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경계심

거주하고 있다.

- 16) 내몽골인은 중화인민공화국내의 내몽골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골민족의 한 부류이다.
- 17) 할하 몽골인들(Halha Mongolians)은 오늘날 몽골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몽골에서 가장 큰 인종집단(ethnic group)이다.
- 18) 몽골인들과 한국인들은 둘다 몽골로이드(Mongoloid) 인종에 속한다. 언어학적으로 두 언어는 ‘알타이 어족’(Altaic family)이라고 부르는 언어 집단에 함께 속해 있기도 하다(Ramsted 1952; Poppe 1955).

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방문하거나 소개를 받는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몽골인들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에게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이라는 공간만 다를 뿐이지 광활한 초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목인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적인 영역에서 한국인들을 자주 대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다른 문화권 속에서 몽골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며, 이것은 몽골에 있는 몽골인들이 탈사회주의 이후에 몽골의 전통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몽골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와 좋은 비교가 될 수 있다. 즉 몽골에 있는 몽골인들이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주변의 아시아 문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동구유럽 등과 같은 다양한 외래문화가 거침없이 들어오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국의 전통과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몽골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이라는 아시아 문화 속에서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영속적이기보다는 거주하는 동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일시적일 수 있으며, 어떻게 보면 외래문화이지만 역사 및 문화민속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동일한 부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융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한국이라는 공간은 비록 한편으로는 몽골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국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또한 바꾸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젊은 몽골인들을 보면 목에는 MP3를 걸고, 손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책상에는 노트북을 두고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몽골인들이 여전히 양고기와 오츠(*ots*; 양의 꼬리 부분으로 만든 고기) 그리고 몽골식 만두인 호쇼르(*huushuur*)가 먹고 싶고, 아이락(*airag*; 마유주)과 수테차이(*süütei tsai*; 우유차)를 마시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타워에는 몽골인들이 좋아하는 양고기를 비롯해서 소나 양고기를 말린 호라이 마흐(*huurai mah*)와 유제품의 일종으로 우유를 말려서 만든 아물(*aruul*) 등과 같은 몽골음식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건물 속에는 몽골식당, 몽골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을 파는 잡화점, 이발소와 미장원, 여행사, 은행 등이 입점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에게 몽골타워는 여전히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문화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문화 못지않게 몽골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은 좀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몽골인의 에스니시티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에스니시티에 내재된 몽골의 유목성을 또한 찾아서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에서 몽골인들의 에스니시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구성원의 수(數)에 따라서 다수와 소수로 나뉘게 되고, 정치력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주도적인 쪽이 결정이 되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으로 나뉘어서 강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집단과 이와는 반대로 약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세력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문화의 분위기가 사회 곳곳

에서 고조되면서 이전에 많이 논의되었던 에스니시티(ethnicity) 문제에서 흔히 제기되었던 갈등과 차이에 대한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에스니시티와 관련해서 다양성과 조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라는 유목문화적인 양상이 보여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경우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 인근에 몽골타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속에서 몽골인들끼리 하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한국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면서 한국문화에 부분적이지만 조화를 이루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나 문화 및 민속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은 아주 친근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자연환경과 사회구조는 다르지만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많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는 몽골의 자연환경이나 사회구조 속에 익숙한 몽골인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이전부터 행하여 오던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문화 및 유목문화와 사회주의 그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탈사회주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나름대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여전히 독특한 유목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문화강대국이며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이기도 하다. 특히 몽골의 유목문화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자연환경을 경영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생업활동이 반영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문화이다. 즉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은 언제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하여 최적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동을 한다. 여기서 최적의 시간이란 방목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아서 다음에 왔을 때

도 가축이나 유목민에게 최대의 자연생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이동을 하여 잠시 정착할 곳의 자연 상태에 대한 정밀한 배려도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방목지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면서, 새로운 방목지가 최대의 자연생산물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몽골의 유목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가장 경제적인 생업활동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위의 자연환경을 대 우주(cosmos)의 원칙에 맞게 통찰할 수 있는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혜는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는 “빨리 빨리” 문화를 초월해서 나름대로의 생활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 몽골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몽골인들의 유목문화적인 생활방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몽골의 유목문화를 살펴보면 유목생활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인 겐(ger)이 특징적이다.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겐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데 불과 1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편한 주거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전통적인 몽골 겐(ger)은 간편하면서도 인락하며 또한 과학적이다. 이러한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는 몽골의 유목민들은 한 곳에 머무르기 보다는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하여 끊임없이 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몽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유목문화는 한국의 도시공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다. 원래 몽골의 유목문화는 땅과 같은 부동산(不動產)보다는 가축과 같은 동산(動產)을 중심으로 가축들의 방목지를 따라서 이동하는데, 특히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고려한 친환경적인 문화로 볼 수 있다.

유목문화가 가지는 이러한 요소 외에도 최근에는 유목이 가장 미래 지향적인 생활방식의 하나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목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토지소유의 관념이 없는 것, 이동성, 그리고 간소함을 인류미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도 한다.¹⁹⁾ 다시 말해서 유목문화가 전해주는 미래의 메시지와 같이 현대인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마치 방랑자와 같이 이곳과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문화에 점차로 젖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좋은 보수와 대우를 제공받는다면 언제든지 직장도 옮길 수 있는 유목형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목적인 주거공간의 이동은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무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기 보다는 더욱더 자주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mobile)한 환경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제 각종 전자기기도 한 곳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지고 다니기 쉽게 고안되고 있는 것도 현대 도시인들의 경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이러한 도시적인 유목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셈이다.

셋째로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사회주의 국가이며, 지금은 성공적으로 탈사회주의 사회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조화로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몽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 경험을 겸허하게 배워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 중에는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를 모두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식 시장경제에 입각한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북한식의 사회주의 사회구조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분단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몽골인들의 경우 한반도의 분위기에 누구보다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분단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²⁰⁾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19) 松原正毅(1999: 21) 참조.

20) 대다수 몽골인들도 중국에 있는 내몽골자치구의 몽골인들과는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이상에서 언급한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좀 더 한국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필자가 1990년대 초반에 만난 몽골의 한 외교관으로부터 들은 실제 경험담을 하나 인용해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한 몽골인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에스니시티를 또한 엿볼 수 있다. 몽골의 외교관이 들려준 실제로 있었던 경험담은 아래와 같다.

몽골의 외교관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생김새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과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보통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래서 몽골인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번은 몽골의 한 외교관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일주일 동안 한 호텔에서 보냈는데, 나중에 체크 아웃(check out)를 하려고 하니까 몽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나라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시아의 한 국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그 몽골 외교관은 혹시 칭기스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몽골은 칭기스칸이라는 역사적인 영웅을 가진 나라라고 하자 호텔 지배인은 너무 놀라는 기색을 하며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존경하는 몽골인이라서 일주일치 호텔비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몽골의 외교관은 다소 놀라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의 후예인 몽골인이라서 당신과 같은 몽골인을 만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호텔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몽골 외교관은 결국 호텔비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몽골의 역사적인 영웅인 칭기스칸은 중동지역에서도 위대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는데 시대가 흘러서 현대에 오면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경험²¹⁾을 통하여 몽골인의 상징적인 에스니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동질성을 가진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21)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인식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과거가 긍정적인 수

보여준다. 아마도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정체성과 에스니 시티는 새롭게 생겨난 새로운 문화적인 현상이기 보다는 이전부터 지속 되었던 한국인과 몽골인 간의 부단한 교류의 결과이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전의 경험에 대한 연장 및 지속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좀 더 분명한 것은 한국이라는 공간은 30,000명이나 되는 몽골인들이 거주 하는 공간으로 몽골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 속에서 때로는 정치적 갈등과 일방적인 정치적 동맹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기간 동안에는 북한과 대등하면서도 긴밀한 형제 국가로 그리고 이제는 한국과의 경제적 동반자로서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더 없이 소중한 기회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현재를 중심으로 오늘날 새롭게 해석하여 한몽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을 대하면서 느끼는 인식은 어떠할까? 또는 이와 대비해서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이 한국인을 대하면서 느끼는 인식은 어떠할까? 아마도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오래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 몽골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기회의 공간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듯이 한국인들에게도 몽골인들은 다양한 다문화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그렇지만 인류학적²²⁾ 혹은 민속학적²³⁾으로 좀 더 한국인들에게 친밀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그 만큼 몽골의 문화는 지나

도 있고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또한 아주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깊은’ 과거이거나 비교적 기억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로 구분하기도 한다. 아울러서 과거의 성격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과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과거를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박환영(2006) 참조.

22) 몽골과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몽골반점을 가지고 있어서 체질인류학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23) 마산의 몽고정은 전통적으로 소주가 몽골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이며, 한국의 가신신안 중에서 부역을 관장하는 조왕신은 몽골의 화신(火神)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 몽골의 민속은 닮아있는 부분이 많다. 최인학(1986)과 박환영(2005) 참조.

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과 경험을 토대로 현재에도 한국의 문화 속에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를 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4. 다문화주의 속의 유목성에 기초한 에스니시티

다문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사회 속에서 몽골인들의 정체성은 두드러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대략 3만 명 정도인데 몽골의 인구를 2백 8십만 명 정도라면 몽골 인구의 1% 이상이 한국에 와 있는 셈이다. 이러한 숫자로 보면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골인을 제외한다면 한국은 해외에서 몽골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나라이다. 즉 중국의 내몽골자치구에 있는 몽골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반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 학업, 상업, 단기산업연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다시 몽골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한국에서 몽골인들만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몽골인들의 공간으로는 서울 을지로 6가에 있는 몽골타워와 2005년 만들어진 재한 몽골인들의 인터넷 모임인 “달라인 살히(dalain salhi; 바다의 바람)” 그리고 매년 7월에 열리는 몽골의 나담축제와 몽골의 태음력과 불교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몽골식 설날인 차간살 축제가 대표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이 한국 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한 공간은 몽골의 유목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몽골인들은 유목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자연환경에 가능한 빨리 적응해야하며 이렇게 적응하고 나면 다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며 언젠가는 다시 이전에 떠났던 그곳

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목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정기적인 이동은 체계적인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이동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유목민들(nomads)은 흔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목민들은 “규칙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즉 유목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어떠한 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무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에도 체계적인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이다. 한편 유목민을 나타내는 ‘nomads’는 “목초지를 찾아서 옮겨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nemein’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²⁴⁾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해왔는데, 1921년에 사회주의를 도입한 후부터 ‘집단농장제’를 실시하면서 유목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까지도 유목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한편 1990년 이후 시작된 자유화의 영향으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유목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지만 여전히 유목문화는 몽골의 곳곳에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몽골의 유목생활에서 보이는 주요 가축은 양, 소, 염소, 말, 낙타 등인데 일부지방에서는 야크와 순록도 사육되기도 한다. 몽골의 유목생활에서 자주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름과 겨울에 주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지역은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된다. 즉 여름에는 강이나 우

24) 유목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정착화된 농경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즉 농경을 경영하기에는 너무 메마른 지역이거나 너무 추운 지역, 너무 경사가 가파른 고산 지역이다. 즉 유목생활이란 제한된 자연여건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어진 환경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축들이 한 목초지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게 된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그네들이 사육하는 가축 그리고 그네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식의 유목문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북서 아프리카의 마우리타니아(Mauritania) 유목민들은 주로 낙타를 사육하는 유목민들인데 우기에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이나 오아시스를 떠나서 이동하고 근기에는 다시 우물이나 오아시스 주위로 돌아오는 이동 유목생활을 한다. Carmichael(1991) 참조.

물 근처로 이동을 한다면, 겨울에는 산을 뒤로 해서 북쪽의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한편 유목민들이 자주 이동을 하는 것은 가축의 방목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목축하기에 적당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 지역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면 가축들이 그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자연환경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목초지로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활력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몽골의 유목문화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 사이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유목문화와 연계해서 매년 7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대동적인 축제인 몽골의 나담 축제와 매년 정초에 행하여지는 전통적인 축제인 몽골식 설날에 해당하는 차간살(*tsagaan sar*) 축제를 통하여 몽골인들의 유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에스니시티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목문화 속에 반영된 세시와 관련해서 몽골의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름에 행하여지는 나담(*naadam*) 축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겨울에 행하여지는 차간살(*tsagaan sar*) 축제이다. 여름에 행하여지는 나담(*naadam*) 축제가 만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유목생활에서 필수적인 가축의 성장과 초원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축제라면 겨울에 행하여지는 차간살 축제(*tsagaan sar*)는 유목민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년 동안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축원하는 축제로 볼 수 있다.

몽골의 나담은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로 매년 7월 11일부터 삼일 간(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에 걸쳐서 열린다. 이것은 1921년 몽골에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7월 11일에서 13일까지 삼일 동안을 몽골의 나담 축제로 정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원래 나담은 나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적인 큰 의식에서 함께 행하여지던 운동경기를 가리키

는 단식그(*danshig*)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²⁵⁾

몽골의 여름축제인 나담을 일컫는 용어가 어떻든 나담 축제의 핵심은 대초원에서 펼쳐지는 몽골인의 민속놀이와 경기인 썸이다. 나담의 대표적인 경기는 말달리기(경마), 활쏘기. 씨름 등인데 최근에는 몽골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샤가이(*shagai*) 놀이인 샤가이 하르바흐(*shagai harbah*)도 포함되고 있다. 샤가이 놀이는 몽골의 대표적인 다섯 종류의 가축(*taban hoshuu mal*)²⁶⁾의 하나인 양(羊)의 복사뼈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튀겨서 노는 몽골의 전통적인 민속놀이 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위하여 2001년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 속의 몽골축제인 나담축제는 작년의 경우 2007년 7월 8일에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게 되는 광진구의 나담축제는 2008년 7월 13일에 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제 8회 재한 몽골인들을 위한 몽골 나담 축제로 열렸다.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주한몽골대사관, 국립중앙박물관, 나섬공동체, 광진구, 서울경찰악대 등 많은 한국과 몽골의 단체가 이 축제를 주관하고 협찬하였고, 현대 아산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였다. 몽골에서 행하여지는 전통적인 몽골의 나담 축제에는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 등 세 가지 민속놀이가 반드시 행하여진다. 그러나 광장중학교에서 열린 나담 축제에서는 도시공간이라는 주어진 여건 때문에 말달리기는 하지 않고 활쏘기와 씨름이 행해졌고, 현대적인 스포츠로 농구와 탁구 시합이 더해졌다. 재미있는 것은 몽골의 전통적인 씨름 경기는 남자들만의 경기로 씨름 선수들은 가슴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조독(*zodog*)이라는 복장²⁷⁾을 입고 씨름 경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나담 축제 때에도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러한

25) 박환영(2007) 참조.

26) 문자 그대로 “다섯 가지의 주둥이를 가진 가축”이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말, 소, 양, 염소, 낙타가 속한다.

27) 몽골의 나담축제에서 남자만이 씨름경기를 하게 된 유래담과 관련해서 조독(*zodog*)이라는 독특한 복장에 대한 설화가 몽골의 유목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다. 자세한 내용은 박환영(2007: 10) 참조.

복장을 입고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년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열리는 나담축제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1,000명에서 1,300명의 몽골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서울 광진구의 나담축제에는 몽골의 전통 민속놀이와 다양한 공연을 직접 참관해서 몽골의 문화를 경험해 보려는 한국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 주듯이 2008년에 열렸던 광진구의 몽골 나담축제의 내용 중에는 몽골의 전통공연 뿐만 아니라 재한 몽골학교 학생들의 문화공연과 한국노래자랑 등의 행사도 준비되어 있었으며, 부대행사로 호쇼르(*huushuur*)와 같은 몽골의 전통음식 판매와 전통가옥인 겐(*ger*) 및 몽골물품 전시행사 등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한편 몽골의 겨울축제인 차간살(*tsagaan sar*)은 문자 그대로 “흰색 달(月)”이라는 뜻이다. 몽골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흰색 달(月)은 태음력과 불교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지만 대개는 1월 말이나 2월 초 혹은 2월 중순경에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차간살(*tsagaan sar*)은 몽골의 전통적인 새해의 첫 달인 썬이다. 마치 흰색이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 달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함을 나타낸다.

몽골인은 차간살(*tsagaan sar*) 때 ‘흰색’ 음식을 즐겨 먹는다. 즉 이것은 흰색 달에 다양한 유제품, 국수 그리고 만두와 같은 흰색 음식을 먹으면 한 해가 흰색과 같이 부정이 없고 평안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흰색 음식²⁸⁾은 대부분 유제품으로 유목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음식이다. 겨울에는 여름에 비하여 유제품을 구하기 어렵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유제품인 흰색 음식을 먹으면서 한 해 동안 가축들의 건강과 풍성한 유목생활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흰색 달에는 가까운 친척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한다. 이 때가 되면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도시에서는 시골로,

28) 흰색 음식과 대비되는 것은 붉은색 음식인데 이것은 주로 몽골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종류의 가축인 말, 소, 양, 염소, 낙타 고기를 상징한다.

시골에서는 도시로 분주하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몽골의 여름 축제인 나담(*naadam*)과 더불어서 1년 중에서 몽골인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날이기도 하다. 한편 흰색 달에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졸곡흐(*zolgho*)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몽골의 예법으로 서로 새해 인사를 하게 된다. 즉 서로가 두 손을 펼쳐서 연소자(年少者)의 손이 연장자(年長者)의 손 밑으로 가서 양자(兩者)의 손이 서로 포개어 지는데, 마치 연장자를 연소자가 밑에서 떠받치듯이 인사를 나누는 방식이다.²⁹⁾ 자간살(*tsagaan sar*)이 되면 몽골의 시골에서는 말을 타고 가다가도 잠시 멈추어서 말을 탄 채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유목생활에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는 자주 이동을 필요로 하는 유목민들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가까운 친족 간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들과의 긴밀한 결속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친밀한 결속의 연대는 자연스럽게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밀감은 보통 의무감과 도덕성 그리고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Bloch(1971, 1973)의 친족 사이의 상호 의무감과 도덕성에 관한 연구는 Fortes(1949)의 연구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Bloch(1973: 78)은 조그만 Merina의 친족 집단들이 이웃 주민들이 비친족들인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와서 의지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가지기 위하여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인공적인 친족관계를 성립시키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Bloch은 Merina 사람들이 도덕적 신뢰성이라는 의미에서 친족과 비친족 사이의 명백한 경계선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주목한다. Merina 사회에서 인공적인 친척들은 분명히 낯선 사람들보다는 더 의존할만 하지만 실제적인(real) 친척들보다는 덜 신뢰할만하다(1973: 78). Bloch은 친족용어의 ‘사용(use)’으로부터 ‘개념(concept)’을 구별한다. 그는 이것이 ‘도덕적 의미(moral meaning)’와 ‘전략적 의미

29) 박환영(2005: 262) 참조.

(tactical meaning)’를 각각 가진다고 간주한다(1973: 85). 예를 들어서 Bloch이 지적했듯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 있는 Merina 사람들은 친척과 비친척들을 위하여 *havana*(문자 그대로 ‘친척들’과 ‘인척들’을 의미함)라는 친족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도덕적 의미와 전략적 사용의 서로 다른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친족용어는 분명히 하나의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직접 호칭(terms of address)의 하나로 사용되면 그것의 의미는 다양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가 된다(1973: 87).

오늘날 몽골 친족 속에 함축된 의미는 광범위하다. 비친척들을 향해서 친족의 은유(특히 피)를 적용하거나 친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몽골인들이 친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사한 기대감에 의하여 친족의 인식을 확대하려는 것을 암시한다.³⁰⁾ 그러나 기본적인(primary) 친족은 여전히 친족 관계를 흔히 모방하는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된다. 인간관계에서 Bloch(1973)이 구분한 도덕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와 비슷하게 몽골에서도 도덕적 의무감이 일차적인 친족(혈족과 인척)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관계들의 다른 양식들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몽골의 차간살(*tsagaan sar*) 축제는 정기적으로 옮겨 다니는 유목생활 속에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대자연의 순환질서 속에 순응하고자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어려움과 오해를 청산하고 오염된 속세의 온갖 잡념을 떨쳐 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는 유목민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목생활 속에서 맺어지고 연계된 가족이나 친족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재정립하고 그 유대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경우 몽골을 떠나 한국에 와 있는 것이 대초원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을 하는 유목민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30) 박환영(2001) 참조.

가까운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친구나 이웃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몽골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재점검하고 재확인 한다는 의미에서 차간살(*tsagaan sar*) 축제는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에게도 중요한 축제인 것이다.

몽골의 나담축제와 차간살 축제는 다양한 몽골의 유목문화를 잘 반영해 준다. 이러한 몽골의 축제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지위의 변화라든지 생업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축제를 통하여 닫혀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고, 또는 하나의 단계를 지나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음식을 장만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연대감을 견고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곁들여져서 흥을 돋우고 그동안 쌓였던 불협화음을 포용하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기초를 다지기도 한다. 특히 몽골과 같은 유목문화 속에서는 공동체의 결속이 강력히 요구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그 빈도수가 잦아질 수도 있다. 또한 기후의 변화와 예측하기 힘든 자연 요건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바쁘고 틀에 박힌 고되고 힘든 유목생활 속에서 일종의 여유를 제공해 주고, 그동안 집착해 온 경제활동에 윤활유를 선사하고, 더욱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이러한 몽골의 축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축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유목문화적인 요소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 몽골인들의 정체성과 에스니시티를 유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서 몽골의 축제 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은 새로운 개념의 유목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가령 몽골인들은 어디에 거주하든 시간에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 이르기 까지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동을 필요로 하는 몽골의 유목문화와 마찬가지로 지구촌의 문화도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서로를 연

결시켜주는 모바일한 공간과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모바일 폰(mobile phone)은 거의 필수적인 생활용품이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정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모바일 폰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목민들은 어디에 머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폰을 가지고 이동을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의 어떠한 한 측면은 유목문화를 떠올리게 한다. 장소에 상관없이 즉 지역번호를 무시하고 언제든지 모바일 폰만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도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것이다. 모바일 폰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역시 유목문화에서 보여지는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network)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만들어진 재한 몽골인들의 모임인 “달라인 살히(*dalain salhi*; 바다의 바람)”가 있다. 이 모임은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보자는 뜻으로 만든 사단법인이다. 재한 몽골인들의 인터넷 모임인 “바다의 바람”에는 몽골사업인 모임, 몽골여성모임, 몽골근로자모임 등 5개의 소모임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 모임은 전통적인 축제를 통하여 맺어지고 재점검되는 몽골인들의 인적네트워크가 좀 더 확대되어서 인터넷상의 인적네트워크로 연장되고 더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인터넷상의 인적네트워크는 유목문화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몽골인들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결국 유목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몽골인들은 어디에 거주하던지 간에 전통적인 방식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주어진 새로운 공간과의 ‘차이’와 ‘다름’을 추구하기 보다는 차이와 다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같음’과 ‘조화’를 추구하여 새로운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유목문화의 전통인 유목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나오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라는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 문화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다문화주의가 팽배한 21세기의 문화현상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에스니시티를 문화인류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중심으로 몽골인들의 에스니시티와 유목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우선 이러한 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문제제기로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외국인들 중에서 몽골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주의 속의 몽골문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는 한국에서 몽골의 에스니시티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보여지는 몽골인의 에스니시티는 몽골의 전통적인 유목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의 문제에 유목문화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의 에스니시티 문제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를 다른 민족의 문화와 상호 비교해서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통하여 인류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화인류학에서 다문화주의와 에스니시티는 서로 공존하면서 또한 서로 대치하는 문화현상으로 중요한 연구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한편으로는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기초로 해서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로 치달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선명한 민족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몽골사회도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자유화와 국제화에 적극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전통과 유목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가 팽배한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에스니시티 문제를 갈등과 다름이라는 입장에

서 조화와 같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유목문화라는 몽골 특유의 생활문화를 분석하여 이 속에서 보여지는 상생과 공생 그리고 인적네트워크의 도덕적 의미와 전략적 의미를 도출하여 보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의 에스니시티 문제는 하나의 조그만 사례가 되겠지만 글로벌한 다문화주의와 아울러서 등장하는 각 민족의 에스니시티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인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논문접수일(2008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2008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3일)

참고문헌

김광억 외

2005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서울: 아카넷.

김미경

2008 “여가문화로서 민속축제 활성화 방안: 진도 민속축제를 중심으로”, 『제22회 실천민속학회 발표논문집』, 안동: 실천민속학회.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김선호

2006 “몽골 ‘한류’의 문화사회학적 분석”, 『몽골학』 20: 231-253.

박환영

2001 “몽골의 야스(駝)와 초스(피)” 『비교문화연구』 7(1): 65-92.

2005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 읽기』, 서울: 민속원.

2006 “탈사회주의 몽골에서 과거의 이해와 친족관계”, 『한국문화인류학』

39(1): 43-71.

2007 “몽골의 나담축제와 유래담 고찰”, 『구비문학연구』 24: 247-268.

松原正毅

1999 “유목의 메시지”, 경기도박물관(편) 『몽골 유목문화』, 용인: 경기도박물관.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올아카데미.

외교통상부(편)

2006 『몽골개황』, 외교통상부.

왕한석

2007 『또 다른 한국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서울: 교문사.

윤인진

2004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광규

1997 『재외 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서울: 집문당.

2000 『재외동포』, 서울: 집문당.

이상우, 박광희(외 공편)

2006 『새 몽골이 온다』, 서울: 기파랑.

이한수

2006 『고려에 시집온 칭기스칸의 딸들』, 서울: 김영사.

전경수

『한국문화론: 해외편』, 서울: 일지사.

정가영

2008 “재한 몽골이주 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인정의 정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정용숙

1992 『고려의 후비』, 서울: 민음사.

최인하

- 1986 “비교민속학적 방법: 조왕의 성격 규명을 위하여”, 성병희, 임재해 (편저) 『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 서울: 정음사.

한건수

-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 문화인류학』 39(1): 195-243.

Bawden, Charles

- 1989 *Mongolian-English Dictionary*, London and New York: Kegan Paul.

Bloch, Maurice

- 1971 “The Moral and Tactical Meaning of Kinship Terms,” *Man* 1: 79-87.
- 1973 “The Long Term and the Short Term: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Morality of Kinship,” in Jack Goody ed., *The Character of Kin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5-87.

Carmichael, Peter

- 1991 *Nomads*, London: Collins and Brown.

Cohen, Anthony

- 1989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Routledge.

Fortes, Meyer

- 1949 *The Web of Kinship among the Tallens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Hamayon, Roberte

- 1978 “Pourquoi un Mongol doit-il etre nomme”, *Turcica*: 143-152.

Humphrey, Caroline

- 1978 “Women, taboo and superstition of Attention”, in Shirley Ardener ed., *Defining Females*, London: Crom Helm Ltd. pp. 89-108.

- Lee, Kwang Kyu
2000 *Overseas Koreans*, Seoul: Jimoondang.
- Lombo, Janchivdorj
2007 *Mongol uls bügd nairamdah ardhilsan solongos ard uls'in hariltsaa negen jaran*, Pheniyán.
- Poppe, Nicholas
1955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Suomalais-Ugrilainen Seur.
- Ramstedt, Gustaf John
1952 *Einführung in die Altaischen Sprachwissenschaft*, Helsinki.
- Smith, Anthony
1994 “The politics of culture: ethnicity and nationalism”, in Tim Ingold ed., *Companion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706-733.

〈Key concepts〉: multi-culture, ethnicity, nomadic characteristics, Mongolians living in Korea, identity

A Study of Ethnicity and Nomadic Characteristics Inside a Multicultural Environment: Focusing on Mongolians Living in Korea

Park, Hwan-Young*

In this article I look into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thnicity and multiculturalism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Mongolian community in Korea where many other ethnic groups are also living at the moment. The most distinctive point for the Mongolian community compared to other ethnic communities in Korea should be their nomadic characteristics.

Today there are about thirty thousand Mongolians living in Korea. This number suggests that at least one out of hundred Mongolians is now residing in Korea. This phenomenon is quite astonishing for nomadic people like Mongolians. In other words, in nomadic culture normally all family members are moving together from one place to another in the steppe. So Mongolians in Korea are also eager to get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is is one major reason why many Mongolians staying in Korea have established a communication center in a special building, namely the “Mongol Tower” near the Dongdaemun subway station.

* Chung-Ang University

This ten stores high building offers all sorts of Mongolian products such as food, newspapers, books, souvenirs, clothes, etc, and even beauty shops, tourist offices, banks and restaurants can be found there, also many shops selling electronic devices, especially cellular phones. Mongolians who visit this area normal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Mongolian and consolidate their human networks although many of them are in command of fluent Korean.

The Mongolian ethnic identity is also very visible throughout the Naadam festival held in Kwangjang middle school, Seoul, around July every year. This festival is the most popular nomadic festival in Mongolia and historically held by nomadic Mongolians and this tradition is still followed by Mongolians in Mongolia, Inner Mongolia in China and Buriat in Russia. Except these regions probably Korea is the only place where Mongolians host the Naadam festival outside Mongolia. Several thousands Mongolians usually participate in this festival in July. With every year more and more Koreans are also taking part in this traditional Mongolian festival.

In this way, the Mongolian ethnic community in Korea is well represented by Mongol Tower and Naadam festivals. So Mongolians are able to preserve their own ethnic identity on the one hand, but also at the same time they try to adopt themselves into the new Korean environment on the other. In general cases, ethnicity rather puts emphasis on “difference” and sometimes even on “conflict.” However, Mongolian ethnicity in Korea today could also involve some other aspects like “similarity” or “harmony.” Hence, ethnicity and multiculturalism in Korea should further be in co-existence with reciprocal balance and mutual understanding.

